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23호 2004년 6월 11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중기청장, OECD국간 교류활성화 제안, 큰 호응



유창무 중기청장이 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4~5일 양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하여, OECD 회원국 등과의 중소기업간 교류협력 증진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회의는 30개 OECD 회원국, 57개 비회원국 및 66개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여 “글로벌 경제

에서 기업가정신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진흥”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유창무 청장은 4일 열린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서, OECD 회원국의 장관 및 관계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현황과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하는 등 對한국 투자를 적극 유도했다.

특히 전세계 GDP의 22%를 차지하는 동북아시아 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OECD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제1의 초고속 광역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신생창업기업(업력 12개월 미만)이 전체 기업의 9%를 차지(GEM 보고서, 2000년)하며, 매년 대졸 신규인력이 30만명을 상회하여 인력공급측면에서도 영국, 프랑스, 일본에 비해 손색이 없는 등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노사관계에 대한 그간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이 대 한국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방안과 관련,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중소기업은 앞으로 기술혁신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기술사업화자금’과 ‘기술평가보증대출’ 등의 시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기술평가보증대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OECD 회원국과의 인적 및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유창무 청장은 5일 중국의 오신치엔(Ou Xinqian)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과 양자회담에서 중국은 우리의 제2의 교역국이며,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협정(MOU)을 가까운 시일내에 체결키로 합의했다.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042-481-4365)

중기 시장개척단, 터키서 1,640만불 수출계약

중소기업청장을 단장으로 15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이 참가한 '터키시장개척단'이 지난 3~5일간 터키의 경제중심지인 이스탄불에서 시장개척활동을 펼친 결과, 3억7500만불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해 1640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다.

터키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어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중소기업과 제품에 대해 높은 호감도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 현지에서 테러예방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주)네오콤, (주)이지시스콤 등의 디지털 보안장비에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터키시장 개척단은 파견 2개월 전부터 현지바이어 발굴, 제품카달로그의 배포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파견기간 동안 185명의 유력바이어들과 접촉했으며,

중기청장은 현지바이어 및 정부관계자와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과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파견업체의 수출상담 활동을 지원했다.

지난해 터키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13.9억불이었으며, 올해 4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7.2억불로, 7번째 무역흑자를 거둔 중요한 해외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어, 중기청은 앞으로도 현지 전시회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개척요원 파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터키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7)

중기, 이전기술개발에 80개업체 58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대학·연구소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전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기업으로 (주)뉴캠머티리얼스 등 80개 업체에 선정했다.

올해 58억원이 지원될 이전기술개발사업에는 총 123개 기업이 신청하여 기술개발여건 등에 대한 현장평가와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80개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을 업력별로 보면 '창업한지 3년 이내'인 기업이 47.5%인 38개사로 나타나

신생기업들이 이전기술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년~10년 이하인 기업이 36.3%(29개사), 10년 이상의 기업이 16.2%(13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지원된 243개사 대상으로 지원성과를 조사한 결과, 사업화성공률이 5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런 성과를 감안하여 앞으로 이전기술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품양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4)

소기업, 저렴한 비용으로 e-비즈니스 가능

- 소기업형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지원대상 컨소시엄 4개 선정 -

중소기업청은 50인 미만 소기업에 적합한 소프트웨어(ASP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방식의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지원대상에 한국광고관측물제작협회 등 4개 업종단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한국광고관측물제작협회,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한국공예예술가협회, 한국패션소재협회 등 4개이며, 이들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75%이내 범위에서 4.5억 원 내외의 솔루션 개발비가 지원된다.

이번 지원으로 컨소시엄 회원사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포털사이트와 공동 구매·판매, 재고·거래처·판매관리 지원 등의 기능을 가진 e-비즈니스

솔루션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판로확대 등 수익창출은 물론 고용유인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02년에는 화훼, 슈퍼마켓, 카센터 등 3개 업종, 지난해에는 기계부품상, 운송주선, 주유소, 주차장 등 4개 업종의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여, 현재 1만여개의 소기업들이 사용 중에 있다.

▶ 기술지원과
기업정보화과
(042-481-4406)